

설교제목: “먼저 구할 일”

설교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한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감당할 수 없이 일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도 일을 한다.

수습하는 일도 있다.

또 일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한다. 일이 좋아서 하는 일이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의 중심이 되는 일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이며, 다른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말한다.

곧 다른 일을 하면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이다.

이것을 잊거나 무시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결국 잘못 킨 단추처럼 자기 한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삶에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일을 모르거나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백성을 부르고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이방인으로 살지 말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장 33절 앞)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및 예수에 의해 이미 시작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뜻이다.

또한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 돈과 명예와 권세에 몰두하는 삶을 말한다.
노예가 되는 삶이다.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잡혀 사는 삶을 말한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유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 없다.

출애굽 한 자유한 백성이 어찌 애굽으로 돌아 가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어찌 다시 사단의 속박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좋은 것이 아닌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자!

번영신앙이란 말이 있다.
요즈음 대세이다. 참 화려하고 웅장하며 위대해 보인다.
감동적이다. 역동적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외면하고 있다.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되게 만들고 있다.
이름은 하나님 부르지만 옛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만 죽은 아세라 목상 숭배이다.
풍요와 쾌락과 안락을 보장할 것 같은 거짓된 인간이 만든 우상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